

'93 아카시아 행사 참관기

李根昌/종합건축사사무소 아미형태, 국제위원회 위원
by Lee, Keun-Chang



아시아지역 건축협의회(아카시아)는 1980년 태국 방콕에서 제1회 총회를 가진 이후 현재까지 아시아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아시아지역 건축인의 모임으로 아시아 건축문화 발전과 지역내 건축정보 교환 뿐아니라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공식행사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올해 아카시아 행사는 9월20일부터 25일까지 홍콩에서 열렸으며 주요 공식 행사로는 제14회 이사회(Council Meeting)와 제7회 학술대회(Forum) 제7회 교육위원회(ACAЕ)가 있었다. 더불어 영연방건축가협회 협의회(CAA Council Meeting)와 국제 건축가연맹 제4지역회의(UIA Region IV Meeting)도 같은 기간중에 협의회가 열렸다. 지원 행사로는 회원국 회원의 작품전시회가 홍콩은행 1층 로비에서 있었고 총 48개 작품중 본 협회 회원의 11개 작품이 전시된 바 있다. 또한 옛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유적지 답사와 최신기술과 건축 조형미를 접목시켜 최근 완성되어 홍콩의 Land Mark가 된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홍콩은행(Hong Kong Bank) 견학도 있었다. 행사기간중 협회 대표단이 아닌 참관인을 위한 특별 관광으로 마카오 및 유명 건축물 방문도 행해졌으며 회원국 친교의 밤에는 만찬과 곁들여 장기대회가 있어 아시아 건축인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데 충분하였다. 금번 제7회 토론회(Forum)의 주제는 소멸해가는 아시아도시(The Vanishing Asian City)였고 동·서양의 도시환경 차이와 문화 혼합이 나타나고 있는 차세대의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처하는 건축문화 창달에 지표를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대회는 이틀간에 걸쳐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연속되어 행해졌으며, 주제발표는 말레이시아 Jimmy Lim교수가 진행을 맡고 중국 Tunney Lee교수, Zhang Zugang교수, 일본 Kiyonori Kikutake씨 및 마카오 Manuel Vincente씨가 아시아 도시개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유산의 존속과 서양 모더니즘의 도입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홍콩 건축가 Tao Ho씨가 좌장이 되어 연사들과 참석자간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생활에 편의성과 유익함을 주지만 동양철학에 근거한 자연과의 대화(Dialogue of Nature)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여 고유한 독창성을 유지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식행사와 지원행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9월20일(월) 등록 및 개막식, 이사회, 교육위원, 전시회, UIA

제4지구 회의

- 21일(화) 이사회, 교육위원회, CAA회의
- 22일(수) 유적지 답사 및 건축물 견학
- 23일(목) 학술대회 개막식, 주제발표, 우정의 밤
- 24일(금) 토론회, 폐막식

1994년 12월경에 ACA총회와 학생잼보리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건축교육의 새로운 제도”(Innovation in the Learning of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필리핀 건축사협회에서는 내년 행사를 위한 여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열성을 보임으로 아카시아 대회의 앞날을 점칠 수 있었다.

본 협회에서는 송기덕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국제위원회 위원과 이사분들이 공식 대표단으로 참석하였고, 서울, 부산, 강원건축사회 회원 몇분과 UIA 제4지역 협의차 건축가협회 국제위원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창간 1주년을 맞는 월간건축지 “이상건축” 편집부장이 동행하면서 공식 국제 행사의 진행과 주변행사에 대한 취재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학생대표로는 한국건축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양대학교 이충훈군과 김호정양이 참석하였으며, 학생잼보리가 없는 금년에는 주로 유적지답사 및 현대건축물 견학을 하였다.

작년 아카시아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된 김지덕 위원장은 집행본부에 송기덕 본 협회 자문위원과 이정근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사회에 김종복 위원과 이영한 위원은 교육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이근창 위원은 이사회와 교육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양 회의에 드나들며 본 협회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김지덕 국제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아시아건축상 심사위원으로 추대되었고, 본 협회에서 주관하여 편집하는 “아카시아 북”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국건축전의 주제결정 시기를 감안하여 아카시아 건축전(특히 학생작품) 주제결정을 매년 12월말 이전에 통보해 주도록 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끝으로, 본 란을 빌어 전시회에 작품을 제출하여 본 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준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카시아 제14차 이사회 및 제7회 포럼 참가기



李廷根/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by Lee, Jeong-Keun

1. 머릿말

9월20일부터 24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아카시아 행사에 참가한 한국측 인원은 21명이었다. 이중 김지덕 국제위원장은 아카시아 부회장 자격으로 초청되었고 회담 대표로는 국내 협회 일정 관계로 오웅석 회장을 대신해서 송기덕 전회장이 고문으로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근씨와 함께 참가했다.

국제위원중 이근창, 이영한, 김종복위원이 각각 이사회 및 교육위원회 관계 회의에 참석하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1993년도 한국 건축전 학생부문 최고상 수상자인 한양대학교의 이충훈군과 김호정양이 이번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다. 또한 특기할 점은 우리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카시아 회원국의 현대건축을 소개하는 「아시아의 현대건축」 편집장 브라이언 테일러씨를 동반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행사기간을 이용해서 가지는 국제 건축가연맹(UJA) 제4지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건축가협회 측에서 김성국, 최승원, 강철희 등 세 사람이 동행하였다. 주요 행사는 힐튼호텔의 메인 홀과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일 21일 양일간에는 종일 이사회 회의 및 교육위원회의가 있었다. 20일 저녁 회의가 끝나고 홍콩은행 본점 지층 프라자에서 각 회원국 출판 작품전시회의 개회식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1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22일에는 주최측이 마련한 건축답사가 있었는데 오전에는 전통민가, 서원, 묘사 및 박물관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2개 팀으로 나누어 IM Pei의 중국은행과 Norman Foster의 홍콩은행을 각각 방문하였다. 23일과 24일의 포럼 첫째 날에는 4명 연사의 발표가 있었고 24일에는 오전 오후 종일 토론이 이루어졌다.

23일 저녁 친선의 밤 행사에서 참가국별 장기 경연을 하였는데 한국은 스리랑카 및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에 입상하였다.

2.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1) 의장의 보고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의장인 필리핀의 알코르도가 그의 협의회 운영 목표를 천명했다. 3개의 지역에 해당하는 3명의 부의장에게 실질적인 일을 할당할 것이며 그에 부응하는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건축 실무제도의 합리적 관행정착, 건축교육제도의 질적개선을 위한 노력 및 새로 출범한 아시아 건축상 제도의 정착 등을 그의 업무 지침으로 공표하였다.

2) 회계 보고

현 의장단 재임 2년간의 예산을 회원국 납입금 총액한도인 12,500달러로 정했다. 이중 부의장들 활동 업무비로 3,000달러, 교육위원회 2,000달러, 포럼의장 사용예산 1,000달러를 할당하였다.

3) 각국 협회 활동 보고

각국 협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 상황을 동일한 양식에 맞추어 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었으므로 짤막한 요약 설명이 있었다. 각국 협회들간에 공통의 관심사 4개를 추출하여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21일 오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토의 결정 사항은 다시 정리하여 각국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Study Group 1: 건축사의 등록 및 등록 면제
(좌장, 싱가포르 Goh Chong Ohia)

Study Group 2: 지속가능한 환경개발
(좌장, 일본 Koichi Nagashima)

Study Group 3: 아카시아 북
(좌장, 한국 김지덕)

Study Group 4: 건축실무에 있어 외국건축가의 참여
연관 전문직종과의 마찰 및 건축설계의 서비스
업종으로의 분류에 대한 문제
(좌장, 말레이시아 Haji Esa Bin)

4) 활동 그룹의 보고

활동 그룹의 팔목할만한 성과가 별로 없었고 작년에 아카시아 건축상 제정을 주관했던 파키스탄의 Jaffery가 모든 자료들을 말레이시아 건축사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아카시아 건축 자료실로 보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필리핀의 Manahan도 현 의장단의 업무수행 자료들을 아카시아 건축자료실로 송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우리 협회 측에서는 지난 2년 여동안 추진해 오던 아카시아 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하였다. 내년의 마닐라 ACA-6기간 전까지는 충분히 출판이 가능하도록 다시

조정된 계획일정과 그동안의 경과 지출내역 등이었다. 각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고 출판사 선정에 있어 좋은 제안을 내도록 요청하였다. 준비해온 210여 페이지의 4.6배판을 가정해서 만든 책의 Mock-up 두권을 보여주니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실현성에 많은 신빙성을 더하였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한 편집장 Taylor씨가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현실성이 없는 질문들과 요구사항들이 많이 튀어나와 상기의 토의 그룹을 통해 즉조 논의하고 결정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 토의그룹에는 김지덕 국제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홍콩의 R.Poon, 파키스탄의 Bilgrami, 편집장 Taylor씨, 아카시아 북 Coordinator 이정근, 한국의 이근창 위원 등이 참여하고 최종 협의 요약문을 Bilgrami씨가 작성하였다. 협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책에 수록하는 작품은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아카시아 회원국에서 추천한 아시아건축가의 작품일 것.
- b. 아직 건축사를 추천하지 않았거나 작품제출 실적이 미흡한 국가의 협회는 다시 연장된 최종 제출일 1993년 12월15일까지 작품을 제출할 것.
- c. 책의 판매가격은 최소한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많은 독자층에게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
- d. 각 회원국 협회는 10달러(U.S.) 가격기준 주문 부수를 미리 신청하고 각 회원국 협회 회원에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것.
- e. 책에 작품이 실린 건축사는 의무적으로 최소 5권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 f. 각국 협회는 자국의 주요 책 판매회사의 주소와 이름을 대한건축사협회에 추천한다.

5) ACA-6 및 제8차 아카시아 포럼

다음 1995년의 제8차 아카시아 포럼과 제16차 아시아건축사협회의 이사회의 개최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간에 협의하여 11월15일 안으로 결정하도록 함. 필리핀 협회에서는 내년 마닐라에서 열리는 ACA-6 및 제15차 이사회의 일정을 12월12일부터 16일까지로 결정하였다. 홍보물과 인쇄물을 통해서 많은 참석을 유도하고 있다. ACA-6의 주제는 「건축공부에 있어 새로운 시도」이다.

6) 아카시아 건축상

제2회를 맞이하는 아카시아 건축상은 이제부터 공동작품의 모든 참여자를 수상자로 거명기로 하였다. 수상작품과 출품한 작품들 모두를 책으로 출판하기로 함. 1992년도 아카시아 건축상을 재정지원한 ICI에 감사의 편지를 띄우기로 하며 ICI 필리핀 지사에도 1994년도 건축상 지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함. 건축상 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건축상 위원회—

—위원장 : 30일 이내 ACA-6 조직위에서 지명

—당연직 부회장 : 김지덕

—ACA 개최지 협회장 : 필리핀협회 Marquez회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 필리핀 협회에서 30일 이내 결정

—당연직 아카시아 의장 : Richeto Alcorido

—건축사의 인사 : 30일 이내 필리핀 협회에서 지명

—2명의 아카시아 지역내 인사 : Zone A-파키스탄의 Syed Jaffery

Zone C-홍콩의 Denis Lau

—아카시아 지역외의 건축가 : Ericson

7) 1993 ACAE 결과 보고

교육위원회 위원장 P.Kasi가 이번의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를 요약보고 함.

- a. 학생 잼보리의 경과를 정리하여 출판물에 실리기로 함.
- b. 일본 건축사협회(JIA)는 격년제로 \$2,900(US)의 학생 건축상 여행비를 제공하기로 함.
- c. 회원국가의 학생, 교수, 학교간에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함.
- d. 교육위원회 주관 행사 일정을 조속히 각 회원국 협회에 통보한다.

8) 기타 사항

UIA에 관한 사항을 아카시아에서 같이 논의하기로 하지는 일부 UIA 제4지역 회원의 요청에 대해 본 이사회는 압도적으로 UIA일인 UIA지역 모임에서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전번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ARCASIA와 UIA는 각각의 다른 목표와 별도의 운영 조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다.

그리고 다음 15차 이사회까지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 사항 5개 항목을 정리하여 상정기로 하였다.

- a. 건축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
- b. 건축사 건축행위에 대한 국제 윤리강령의 시행
- c. 지속 가능한 환경의 개발
- d. 아카시아 학생 건축상과 학생 및 교수 교환 프로그램
- e. 홍콩협회가 제14회 이사회 및 제7차 아카시아 포럼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른데 대한 치하

3. 제7회 아카시아 포럼

9월23일 오전 9시 힐튼호텔 메인 홀에서 홍콩 총독 패튼씨의 개회사에 이어 제7차 포럼이 시작되었다. 23일에는 4명 연사의 발표와 간단한 질의 응답이 진행되었다. 24일에는 홍콩공원 야외 무대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우천관계로 홍콩 예술관 실내에서 진행하였다.

1) 4명의 연사와 제목

- a. Kiyonori Kikudake(일본) : 아시아 건축의 미래
- b. Manuel Vincente(폴투갈) : 보건과 전이, 미래를 향한 현재
- c. Tunney Lee(홍콩) : 떠오르는 아시아 도시 : 상층과 모순
- d. Zhang Zugang(중국) : 중국 도시들의 문화적 전통의 계승과 지속성

2) 발표요약

기쿠다케씨는 1959년 그가 제안한 바 있는 해양도시를 기축으로 하여 인공대지 Infra-System과 해양 도시 Infra-System을 제안하였다. 그의 제안의 주안점은 현재의 도시 체계가 가지고 있는 도시 간접 자본시설(Infrastructure) 이 적합한 정도의 재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한 선택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도시의 통신 및 교통 등 하부체계를 쉽게 개변하고 덧붙이고, 개선할 수 있게 하여 생활 패턴의 변화 요구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과 공업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미래에 대비한 아시아의 도시 환경을 창조하자는 주장이다. Vincent씨는 마카오의 초창기의 역사적 발전과정 전반에 대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최근에 일부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Tunney Lee 교수는 '사라지는 아시아의 도시'라는 주제는 그 사라진 자리에 다시 생성하는 도시를 암시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도시 생명의 과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역사 이래 계속되어 오는 것이며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각 종교 문화의 지역간 이동과 전파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지역간 이동속에서 건축은 지배계층과 우세한 이데올로기를 지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그러나 이 공공건축은 기존의 지역적인 조건에 대응해서 이루어진 풍토건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독특한 건축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서구세력의 아시아 침입은 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띄었다. 서구의 영향은 아시아의 도시들을 세계적인 교역을 위한 기지로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서구인이 철수한 후에도 아시아의 도시는 시장경제의 질서에 부응하게 되었으며 토지와 건물도 상품으로 변하였고 소비주의는 건물을 유행과 지위식별 상징으로 변했다. 그래서 홍콩대학에서는 건축교육 과정에서 전통적인 건물과 대지에서 설계를 형태 창조의 방법이 아니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전통건축으로부터 표피적인 성질을 모방하는 것을 지양하고 배후의 가치체계와 과정을 통해서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양인들에게 책임을 돌릴게 아니라 아시아의 건축인들은 스스로에게 책임지워진 역할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생동성과 전통문화를 담아내어 세계 건축에 이바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Zhang Zugang 청화대 교수는

첫째, 전통적인 도시 경관과 건축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 이러한 취지에 따라 중국의 각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통 도시 건축 문화유산 보존하기 위한 시행방법 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셋째, 풍토적인 지역특성과 현대적 기술 및 생활 스타일을 접합하는 중국의 실례를 제시하였으며

넷째, 도시환경에서의 자연 경관과 녹지공간의 보존이 또한 문화유산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3) Panel Discussion

포럼 둘째날인 오전 오후 두 회기를 모두 토론시간으로 가졌다.

홍콩의 건축가인 Tao Ho씨가 좌장이 되어 주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토론의 초점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발표자들의 논지가 제각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모아지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언어 소통상의 문제로 각 문화권마다 쓰이는 용어상의 영어 표현에의 편차가 통화의 벽으로 작용했으며 과반수 이상의 발표자들의 영어 표현력은 의사소통에 매우 제약적이었다.

셋째, 포럼 좌장의 요약과 암시의 범위 안에서 토론이 모아져야 하는데 청중들의 질문과 의견제시가 중구난방이었다.

따라서 포럼의 전체적인 진행이 산만하고 비생산적이었다.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4. 맺는말

해가 거듭할수록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첫째, 각국별 연례 업무 보고가 양식을 갖추어 서식을 동일하게 한 것.

둘째, 아카시아 건축상에 이어 아카시아 학생 건축상이 제정되고 그 시행 규칙이 제정되게 되어 격년제로 실시되게 된 점.

셋째, 교육위원회 각국별 보고도 체계를 갖추게 되어 출판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각국간의 학생, 교수의 교류를 현실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은 실질적인 활동그룹의 역할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협의회 전체 예산 규모의 영세성과 이에 따른 제 활동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그룹의 주요 책임을 맡은 회원국 협회의 실천 의지와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내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단 맡은 일은 흐지부지 않고 충실히 결말을 낸다는 이미지를 회원국에 심어주고 있다고 본다.

최근의 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아카시아 북 프로젝트로 여러 난관과 장기간의 진행기간을 거쳐서도 그 결실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로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선해야 할 점은 대회의 개최지마다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데 앞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연구와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 건축사협회 회원들간에도 이제는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관한 사항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편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교류의 범위를 넓힐 기회를 만들기 바라며 그래서 한국 건축문화의 국제화에 앞서주기를 희망하게 된다. 금년에는 건축사협회의 내적인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제교류 강연회 등을 시행치 못하였다. 앞으로는 가까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교환 교류하는 강연회,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 해야겠다.

해마다 건축사협회에 제안하는 사항중의 하나는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에 관련한 건의이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바 모든 회원 제위들의 재정이 쇠도하기를 본다. 우리 협회는 각국의 협회와는 달리 교육위원회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나가면 절름발이 행세를 하게 된다. 우리 협회에도 연수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목적이 다른 활동 범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 협회에도 연구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생겨 연수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고 차세대 건축사 후보생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주어지고 건축사들간 또는 건축사들과 교육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동연구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협회가 보다 떳떳하고 대등한 교류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줄 믿는다.